

December 22, 2006



이흥구, “핵실험, 미.중 대타협 계기될 수도”

화해상생마당서 정세현, “북 개방.개혁은 미국과의 관계개선부터”

2006년 12월 22일 (금) 16:52:26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 2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화해상생마당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미국과 중국이 향후 50년간의 한반도 질서를 둘러싸고 대타협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년)’의 설계자인 이흥구 전 국무총리는 22일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관련국 대북정책 실패의 합계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고 “오히려 새로운 계기를 가져오지 않았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화해상생마당이 주최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색’ 기조발표를 통해, 이 전 총리는 자신이 최근 만난 미국의 정책집단은 “여전히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평양보다는 베이징에서 찾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핵실험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도 확실한 것 같다”며 “전에는 체제변화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핵포기로 바뀌었고 양자대화에도 신축적”이며 특히 “부시-라이스-힐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도 단순화 돼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December 22, 2006



그는 “이럴 경우 북한의 고민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북 체제의 특성상 핵무기 보유가 필요한데 지난 몇달 핵무기 보유를 자축하던 사회 분위기에서 하루 아침에 핵을 포기한다 하기도 어렵고, 가지고 있어야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에 직면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대된다”는 것이다.

북의 핵무기 보유가 남북관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북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이라는 정치군사적으로 질적 변화의 가능성을 안게 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핵문제를 북미간의 문제라며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방관하는 것도 자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기존 대북포용정책이 ‘평화, 통일, 자유, 자주’ 등의 국민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목표 중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 이홍구 전 총리는 체제의 경직성을 이유로 북한의 개혁, 개방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오른쪽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또 햇볕정책 등이 사회통일을 경시하고 국가통일에 집중하면서 남남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지원이 지도자와 주민 사이에 어느 쪽을 돕는 것인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를 워낙 잘 만들어놓다보니 그 체제가 개방이라는 선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한다는 화해협력정책이 통

December 22, 2006



하지 않는 것도 북 체제의 경직성과 관련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핵실험은 한국의 ‘전쟁방지 우선’과 미국의 ‘북 핵무장 견제’라는 대전제의 차이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의 발제에 공감을 표했다.

반면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햇볕정책 등이 우선 사회통일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화해협력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비판은 “국가 통일로 가기 이전의 사회통일을 이룩하는데만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지연이 북체제의 경직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험을 예로 들어 “미국과의 적대 관계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개혁문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 정세현 의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 토대 위에서 9.19 공동성명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동성명 1항(북핵폐기)과 2항(미.일의 대북수교)이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경로 한성대 총장의 사회로 민병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윤여준 전 의원 등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각계 150여명이 참석했다.

화해상생마당은 중도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으로 김지하 시인과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이부영, 윤여준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December 22, 2006

Übersetzung

Lee Hong-gu: "Nuklearwaffentest als möglicher Anlass für US-chinesische Zusammenarbeit"

Beim Friedens- und Aussöhnungsforum zu dem Thema „Nach dem Atombombentest von Nordkorea - Suche nach einem möglichen Weg zum Frieden“ hat der ehemalige Ministerpräsident in seinem Vortrag betont, dass für eine Lösung der Nuklearkrise Peking und Washington zusammenarbeiten müssen. In der Vergangenheit war das Ziel der USA stets ein Systemwandel Nordkoreas. Heute jedoch geben sich die Vereinigten Staaten bereits mit dem Verzicht Nordkoreas auf Nuklearwaffentests zufrieden und legen vermehrt Wert auf Zwei-Parteien-Gespräche. Hier ließe sich eine gemeinsame Grundlage für eine US-chinesische Zusammenarbeit finden.